

【서평】

# 백종현 교수의 철학적 열정

—칸트의 3비판서 완역—

이 남 원

## I. 들어가면서

위대한 고전에 대한 번역 작업은 매우 중요한 학문 또는 문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런 까닭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 이래로 많은 학자들이 번역 작업에 몰두했다. 그 결과 한 국가나 한 시대의 사상과 문화가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기도 했다. 중세 이슬람의 학문이 서양의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 중 일부는 서양인들이 자신의 뿌리인 고대 그리스인들이 남긴 학문적 업적에 대해 소홀히 한 반면에, 오히려 아랍인들이 그리스인들의 그것을 천착하면서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한 데 있다. 또한 13세기 무렵 시작된 서양인들의 그리스, 로마 고전 문헌들에 대한 번역은 차츰 결실을 맺어 결국 르네상스라는 위대한 시대를 만들어낸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동아시아의 독특한 불교 사상 및 문화의 탄생은 서역 및 중국 승려들의 불경 한역에 힘입은 바 크다.

거창하게 학문 및 사상의 발전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번역이 가져다주는 현실적 이익은 크다. 원전의 해석이나 해독이 일부 소수의 전문가의 몫이라면, 번역의 혜택은 다수의 대중에게 돌아간다. 일부의 소수가 위대한 지혜를 독점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 다수가 위대한 문화와 사상의 혜택을 입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런 면

에서 고전의 번역은 우리 시대의 끊임없는 요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서양 고전, 특히 철학 고전에 대한 우리의 번역 작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경제 대국과 기술 대국을 부르짖는 오늘 날, 우리의 인문학 분야 수준은 초라하다. 그 이유를 서양 고전 번역의 소홀 탓으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의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도 있겠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란 아무 것도 없으니, 동서양의 위대한 선각자의 지혜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편일 것이다. 고전에 대한 번역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선현들이 남긴 고전 문헌에 대한 번역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상의 편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현들의 지혜에 대한 탐구 못지않게 서양인들의 지혜에 대한 탐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양에서 가장 먼저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인 일본의 서양 고전에 대한 번역은 활발하다. 칸트 전집은 말할 것도 없고, 고대에서 현대에 걸쳐 위대한 서양 철학자들 저서의 상당 부분이 번역이 이루어졌고, 그 목록은 방대하다. 더욱이 그들의 번역 작업은 매우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특색이다. 다수의 관련 전공자들이 협력을 하여 한 철학자의 저서들을 체계적으로 기획하여 번역하고 있다. 그리하여 번역 용어상·방법상의 통일이 이루어져 독자들이 매우 편리하게 번역서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번역은 양적·질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진다. 필자가 어릴 때 자주 듣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나 경제발전이 일본에 비해 약 50여년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턱 밑에 와있다고 이야기들 한다. 그러나 사상 및 학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번역의 경우는 어떠한가? 일본을 따라잡기는커녕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마저도 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서양 철학의 고전 중의 고전이다. 필자가 대학 생활을 하던 70년대 중반, 그 책이 곧 번역 출간될 것이

라는 문구가 모 출판사의 여러 책들의 속표지에 광고된 적이 있었다. 필자의 기억이 맞다면 이 광고문 게재는 상당 기간 넘게 지속되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러던 중 2년 쯤 전에 이 책이 다른 출판사에서 어떤 젊은 학자에 의해서 번역되어 철학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중앙지 문화란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처음 광고된 지 30년이 훌쩍 지나간 시간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학문을 총괄하는 당국의 번역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창조적 작업 이상의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번역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전무해서 번역을 장려하는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번역자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혜택도 거의 없다. 그리니 번역 사업은 관계인들의 안타까운 탄성만 있을 뿐 진전은 없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시간에 서양의 근대 철학이 합리론과 경험론, 두 갈래로 나뉘어 전개되어 나갔다는 사실을 배운다. 그러나 그들이 이 위대한 철학자들의 저서를 직접 접하기는 힘들다. 합리론과 경험론의 고전들의 거의 대부분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양 철학의 거의 모든 고전들이 번역되어 있는 일본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 II. 백종현 교수의 3비판서 번역

칸트는 다른 철학자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다소 나은 편이다. 칸트의 주저라 할 수 있는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 『윤리형이상학 정초』 등이 모두 이미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그 중 『순수이성비판』은 백종현 교수[이하 백 교수]의 번역본이 나오기 이전에 무려 8종의 한국어 번역본이 유통되고 있다.<sup>1)</sup> 기타 칸트의 소저

1) I. Kant, 『순수이성비판 1』, 백종현 옮김, 대우고전총서 019, 아카넷, 2006, 6쪽. 이 중 필자는 5종만 확인할 수 있었다. 모두 『순수이성비판』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윤성범, 을유문화사, 1969.

서 및 강의록도 일부 번역되었다. 다른 철학자에 비하면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칸트의 철학이 망라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더욱이 체계적이지도 못하다. 일본에서 “이와나미 출판사(岩波書店)의 『칸트 전집(全集)』이 전 22권으로 기획되어 2000년부터 새롭게 번역 출간되고 있”<sup>2)</sup>는 것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척박한 상황에서 백 교수는 칸트의 가장 중요한 저서라 평가받고 있는 네 권의 저서를 일종의 기획의 형태로, 동일한 출판사에서 번역해 내었다. 이러한 형태의 번역 작업은 어쩌면 앞으로 있게 될 위대한 철학자의 방대한 번역작업의 한 가지 표본이 될 수도 있겠다. 2002년 9월에 『실천이성비판』(대우고전총서 005)이 출판된 이후, 2005년 8월에 『윤리형이상학 정초』(대우고전총서 016)이 출판되었고, 방대한 저서인 『순수이성비판』(대우고전총서 019, 020)이 1, 2권으로 하여 2007년 6월에 출판되었으며, 2009년 3월에 『판단력비판』이 빛을 보게 되었다. 2740쪽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의 번역을 백 교수 혼자 힘으로 한 것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러한 방대한 양의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오랜 기간 준비 기간이 있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백 교수도 『순수이성비판』을 출간하면서, “여기에 새롭게 펴내는 이 역주서는 역자의 20년 이상의 주해 연구와 강독,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국내외 연구 성과 및 최근에 학계서 벌인 번역어 표준화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sup>3)</sup>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칸트의 위대한 비판철학의 활동에 비견될 수 있다. 칸트는 46세가 되던 1770년에 쾨니히스베르크 대학교의 교수로 취임한 이래 11년간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일체의 저술 활동을 중단한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비판철학을 완성하기 위한 완벽한

---

최재희, 박영사, 1972. 정명오, 동서문화사, 1975. 전원배, 삼성출판사, 1982. 이명성, 홍신문화사, 1987. 번역자들 중에는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도 포함 되어 있다.

2) 『순수이성비판 1』, 6쪽.

3) 같은 책, 같은 쪽.

계획을 세웠고, 이에 대한 기초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 후 길지 않은 동안 칸트는 마치 용암이 분출하듯이 위대한 사상의 용암을 분출하였다. 1781년에 『순수이성비판』, 1783년에 『프롤레고메나』, 1785년에 『실천이성비판』, 1788년에 『윤리형이상학 정초』, 1789년에 『윤리형이상학』, 1790년에 『판단력비판』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순수이성비판』의 번역이 오랜 연구와 강독 및 국내외의 연구 성과, 번역 표준화 작업의 결과물이라는 백 교수의 진술은 그의 다른 비판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백 교수의 번역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고전 번역은 단순히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고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풍부함을 우리말로 가능한 한 많이 담아내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 그 고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는 연구 성과를 참조하는 일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오랜 연구 기간이 필요한 일이며, 동시에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상이한 해석을 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을 때, 번역자는 가장 적합한 해석을 가려내야 하는 판관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창조적인 해석을 제시해야 하는 창의적인 학자이어야 한다. 어쩌면 고전 번역은 그 자체 하나의 연구적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고전 번역이 어려운 것이다. 백 교수의 번역 작업은 이 모두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이하에서 그런 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백 교수의 번역서에는 모두 <해제>가 포함되어 있다. 『순수이성비판』에 대한 <해제>는 무려 85쪽에 달한다. 칸트 전공자가 아닌 독자들도 <해제>를 읽는 것만으로 칸트의 이론 철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고, 일목요연하며, 친절하게 『순수이성비판』의 복잡한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백 교수의 저서 『존재와 진리-칸트 『순수이성비판』의 근본문제』<sup>4)</sup>의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되었으리라 짐작한다. 이 점은 그의 다른 모든 번역서에도 적용된

4) 백종현, 『존재와 진리-칸트 『순수이성비판』의 근본문제』, 철학과 현실사, 2000.

다. 특히 『판단력비판』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연구가 주로 전공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 독자들은 이 책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다. 상당량에 달하는 백 교수의 <해제>가 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백 교수의 모든 번역서에는 원전의 쪽수가 표기되어 있다. 철학 고전의 번역에서 원전의 쪽수 표기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번역서는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백 교수의 번역 말고 필자가 확인한 국내의 『순수이성비판』 번역서 5종 중 3종은 아예 원전 쪽수에 대한 표기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을 놓친 것이다. 필자는 원전 쪽수가 없는 칸트 저서에 대한 번역서는 소장하고는 있되 참조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백 교수는 “칸트 원전 제1판[A]과 제2판[B]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은 본문 중에서 글자체를 산돌제비체로 바꿔 표시”<sup>5)</sup>한다고 하여 원전 쪽수 표기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백 교수는 본문 번역에는 <역주> 제목을 달아 자신의 번역이 단순한 번역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놀랄 만한 일은 『순수이성비판』의 경우 역주의 수가 1천 수 백여 개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그의 다른 번역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의 『순수이성비판』들에는 최재희 교수의 번역본을 제외하고는 역주가 거의 없다. 최재희 교수의 역주도 상당한 분량에 달하지만, 백 교수의 역주는 최재희 교수의 그것의 수배에 달한다. 칸트의 저서의 일본 번역본(예컨대 岩波書店의 『カント全集』)이나 영어 번역본(예컨대 *The Cambridge Edition of the Works of IMMANUEL KANT*)에는 독일의 학술원판 등에 근거한 다수의 역주가 붙여져 있다. 이것은 철학 고전 번역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인 데도 우리 학계에서 다소 소홀히 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백 교수의 역주는 치밀하고 엄밀한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으며, 이 점은 이후 철학 고전 번역을 시도하려는 모든 학자가 본 받아야 할 일이다. 모든 번역서에서 보여준 백 교수의 학문적 정열과 엄밀성에 감탄하는 바이다.

5) 앞의 책, 135쪽.

백 교수의 번역에서 또 하나 본 받아야 할 점은 국내외의 연구 실적을 두루 참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칸트 철학과 관련하여 목록화한 참고문헌의 수는 놀랄만할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하다. 백 교수는 칸트의 저서 번역 이외에 자신의 다른 번역서나 저서에서도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목록을 빼곡하게 수록하고 있지만, 이는 마치 촌 촌한 그물을 사용하여 포위망에 든 모든 고기를 담아내려는 어부의 마음가짐과 같은 것이다. 이는 무명한 한 학자의 작은 연구 내용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 한 톨의 알곡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농부의 마음처럼 결실을 거두고자 하는 학자로서의 성실한 마음가짐의 방증이다. 학자들이 서양이나 동양의 위대한 연구 실적을 인용하여 자신의 학문적 크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작은 허영심에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백 교수는 국내의 연구 실적, 그 중에서도 석사학위 논문 같은 작은 연구 실적도 소홀히 하지 않는 학문적 성실함과 섬세함 보여주고 있다.<sup>6)</sup>

그 밖에 백 교수의 번역본에는 다른 번역본과 달리 특기할 만한 점이 많다. <유사어 및 상관어 대응 번역어표>를 달아, 칸트의 용어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 친절한 번역서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번역서 말미에 방대한 양의 <개념 찾아보기> 또한 독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가 학창 시절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독해하면서 생소한 단어를 독일어 판본이나 켐프 스미스의 영어 판본의 색인을 찾아보면서 매우 서투르고 어렵게 이해하려고 땀 흘렸던 기억이 난다. 이제 독자들은 보다 쉽고 편안하게 칸트의 용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6) 백 교수는 다른 모든 번역서에서 국내외의 연구 업적을 목록화하고 있지만, 특히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국내 칸트 학자들의 1949년에서 2004년까지의 국내외 학위논문을 목록화하고 있다.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국내의 석사 학위 논문을 목록으로 만든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칸트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III. 회상과 기대

우리나라에서 칸트는 서양의 다른 철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국내나 국외에서 칸트 철학에 대해 학위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유독 많았고, 칸트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칸트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가지면서 논문을 쓴 사람도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우리나라에서 1990년에 “한국칸트학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매해 빠짐없이 논문 발표회와 논문 발간이 이루어져 왔다.

“한국칸트학회”를 중심으로 칸트 학자들이 꾸준히 모임을 가지는 가운데 백 교수는 칸트가 사용하고 있는 중요 용어의 번역어를 변경·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면서 동일한 칸트 용어에 대한 번역어의 표준화 작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7)</sup> 그의 번역어 정비 및 표준화 제안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칸트 철학에 대한 오랜 천착과 애정에서 나온 것이리라 짐작된다. 왜냐하면 백 교수의 번역어 교체 제안은 “기존의 한국어 번역본은 물론, 주요한 영어 번역본과 우리와 같은 한자 문화권에 있는 일본어 및 중국어 번역본”<sup>8)</sup>을 두루 참조한 뒤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 교수의 제안은 칸트 학회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지는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의 용어에 꼭 맞는, 그 용어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번역어의 선택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칸트의 어떤 용어에 대한 하나의 번역어가 칸트 사상을 존재론적 관점에 충실하면서 선택된 것이라면, 그 동일한 용어에 대한 다른 번역어는 칸트 사상을 인식론적 관점에 충실하면서 선택된 것이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칸트를 바라보는 학자들은 다른 용어 선택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7) 백 교수는 다음의 책 부록에서 칸트의 용어 일부의 표준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F. Kaulbach, 백중현 옮김, 『칸트-비판철학의 형성과정과 체계』, 서광사, 1992. <[부록 3] 칸트 철학 용어 해설: 칸트에서 ‘선험적’과 ‘초월적’의 의미>, 311-319쪽.

8) 앞의 책, 6쪽.



측면도 있다. 또한 학자들은 자신이 즐겨 사용한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애착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칸트 학자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용어의 표준화 작업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래서 상당 부분 정리가 된 듯도 하지만, 완전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작업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수긍할지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 학자가 사용한 용어들에 대한 표준 번역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다. 다만 시간을 많이 요하는 작업이다. 어쨌든 백 교수의 번역어 표준화 제안 및 표준화 용어의 대안 제시는 우리나라 칸트 철학 연구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백 교수의 칸트 3비판서 번역은 백 교수의 소기 목적을 상당 부분 앞당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

하나의 철학 고전은 모든 시대에 걸쳐 항상 동일하게 독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재해석이 요구될 때도 있고, 어떤 특정한 철학자의 특정한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연구 성과에 따라서는 정관사, 부정관사 하나하나가 의미 부여와 변경에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번역자는 이런 것들도 번역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은 재창조 작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나가면 새로운 번역서가 요구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의 많은 학생과 학자들은 30여 년간을 최재희 교수의 번역본에 의지하여 칸트를 공부하고 연구하였다. 이제 새롭게 철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은 백 교수의 번역본에 의지해 칸트 철학을 천착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아마 훨씬 세월이 가면 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번역서가 새롭게 탄생할는지 모른다.<sup>9)</sup>

어쩌면 어떤 관점에서 책을 번역할 것이냐에 대해 논쟁하면서 동일한 저서에 대해 전혀 상이한 관점에서 나온 번역서를 접하게 될는

9)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영어 번역본도 여러 종류가 나와 있다. N. Kemp Smith가 번역한 *Immanuel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London: Macmillan)가 1929에 출간되었으며, 그 후 F. Max Müller가 번역한 *Critique of Pure Reason, Immanuel Kant* (New York: Macmillan(Anchor Books edition))가 1966년에 출간되었고, P. Guyer과 A. W. Wood가 번역한 *Critique of Pure Reason* (Cambridge Univ. Press)가 1998년에 출간되었다.

지도 모른다. 그것이 사상적 논쟁으로 이어지면 더욱 반가운 일이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지론학파는 세친의 『十地經論』을 연구하는 학파였다. 이 책을 지론학파의 세 학자 보리루지, 늑나마제, 불타선다가 공동 번역하였으나 이견이 생겨 별도로 번역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북도파와 남도파로 갈리게 되었다.<sup>10)</sup> 학문의 발전은 다양한 논쟁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천착과 깊은 연구의 결과로 나온 번역서가 다수 나오는 것도 학문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마냥 기피할 일은 아니다.

## IV. 나오면서

백 교수가 칸트 주저의 번역을 충실하게 이루어내었지만, 칸트의 사상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칸트의 수많은 저서들이 계속 번역되어 나왔으면 한다. 백 교수가 이상의 네 권의 번역서 말고 다른 칸트 저서를 번역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번역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더 이상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칸트 학자들이 분발하여 그 일을 떠맡아야 한다. 필자도 칸트의 강의록인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과 『칸트의 형이상학 강의』를 번역한 적이 있지만,<sup>11)</sup> 칸트의 강의록보다는 그의 초기 저서 및 후기의 주요 저서들이 빨리 번역되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칸트 학자들의 분발을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 교수의 칸트 주저들에 대한 번역서가 출판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책들이 널리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이남원  
부산대학교

10) 소운 스님, 『하룻밤에 읽는 불교』, 랜덤하우스중앙, 2004, 71쪽.

11) 앞의 책은 울산대학교 출판부에서 1998년에, 뒤의 책은 울산대학교 출판부에서 1999년에 출간되었다.